



왜 동성을 사랑하나구요?

동성애에 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의문이라면 아마도 '어찌다 동성애자가 되었을까?' 일 것이다.
 왜 하필이면 동성이 좋은 걸까. 이성을 좋아하게 될 수 없었을까.
 선천적인 걸까. 어떤 후천적 영향에 의해 그런 것일까.
 이 수수께끼 같은 의문은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스스로 갖는 공통점이다.
 왜 나는 이성애자가 아니고 동성애자가 된 것일까하고 말이다.

글 한재운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뭔가 부족해서 동성애자가 된다(?)

그간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시도되었다. 성호르몬의 불균형한 분비로 인해 동성애자가 된다는 호르몬 부족설, 인간의 성염색체 내에 게이유전자가 있다는 유전자설, 태내에 있을 때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임신부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의 부족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선천적 결함설, 부모의 부재나 냉담한 양육환경으로 인해 동성애자가 된다는 가정환경설. 많은 여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란 남자이기는 어린 때 여성의 행동부터 익히게 되어 지이가 된다거나 사춘기 이후 이성에게 불쾌한 경험을 하

이 동성애자가 된다. 류의 학습이론설 등 많은 학설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

동물도 하지 않는 짓을 인간이 한다(?)

왜냐하면, 이미 동성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탓에 늘기엔 그럴싸하게 보이겠지만 실제 동성애자를 정확히 설명해 줄 타당한 연구결과는 찾지 못하는 것이다. 가령, 표본의 수집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구 대상으로 모두 간혹이나 정신병원 수감자였거나 어이츠로 사망한 사람들로 뽑는 식이었다. 호르몬 부조화설이나 가정환경설, 학습이론설 같은 경우도

미찬가지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성애자로 태어나지만 무엇이든가가 결핍되면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다른 남자보다 많아서 게

이가 된다는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이성애자 남성에게 여성호르몬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가 여성보다 남성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억도 성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은 동성애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런 이론은 동물도 하지 않는 짓을 인간이 한다며 비난하지만, 이미 미국의 동물학자 브루스 바게미홀 교수는 무려 450여종에 달하는 동물들의 동성애적 행위를 자세히 관찰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1943년에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선언했었던 미국정신의학회도 1973년도에 '정신진단분류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였다. 즉,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이 아니며 치료의 대상도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이성을 사랑하는 데 이유가 없듯 동성애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동성애자가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궁금

증을 정말 해소하고 싶다면 우리는 "왜 이성애를 하는가? 어찌다 이성애자가 되는 것일까?" 하는 호기심과 의문부터 먼저야 한지 모르겠다. 이성애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하니 표본을 구하기도 더 쉽지 않겠는가. 혹은보통이 이성애자라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이성애를 배운 건 아닌지. 어릴 때 읽은 <백선공주>나 <크비오와 줄리엣> 같은 소설에 너무 감명받아서 이성애를 따라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 어쩌면 동성을 혐오해서 일부러 동성을 좋아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왜 이성애자들은 동성을 사랑하는 일을 혐오하게 되었는지부터 고찰해야 한다. 본인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야 때부터 현재에 이고

머리 긴 여자에게 주로 호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 남자를 '장발애자'라고 분류해 차별하지 않았듯이, 이제 더 이상 왼손잡이를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 자체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문제제기 할 요량이 아니라면 동성애자만 유독 문제시 삼을 이유도 없다.

기까지 개인의 일생은 천서히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런 역진문이 불편하고 또 억지라고 화를 내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성애자인 필자가 괜히 이성애자들에게 시비를 걸고자 한은 결코 아니다. 자연계에 자연적이지 않은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를 상기해 볼 때 동성애의 원인은 그리 궁금할 사항도 아니다.

사실, 동성애나 이성애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어떤 성별관계에 놓여있는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요점은 이것이다. 머리 긴 여자에게 주로 호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 남자를 '장발애자'라고 분류해 차별하지 않았듯이, 이제 더 이상 왼손잡이를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 자체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문제제기 할 요량이 아니라면 동성애자만 유독 문제시 삼을 이유도 없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일 뿐.